

통계로 본 서울사람들의 삶

[e-서울통계 87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속에서 서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적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해보고자 함.
- 따라서 ‘통계로 본 서울사람들의 삶’에서는 서울사람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및 계층의식, 가족의 모습, 청소년·여성·어르신의 삶의 변화, 독서 및 신문보는 인구, 여가생활 등 서울시민들의 삶과 인식 변화 등을 통계로 작성하였으며,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서울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주로 활용된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표하고 있는 서울서베이(2003~2013년) 및 통계청 사회조사(1998~2013년), 장래가구추계(2013~2030년) 등임.

목 차

[요 약]	1
1. 주관적 인식 및 만족도(고향인식률, 삶 만족도, 계층의식)	3
2. 가족의 모습(가구원수별 가구, 가족의 위험요인)	6
3. 청소년의 삶(스트레스 인지, 평균수면시간, 교육)	8
4. 일과 여성의 삶(여성 취업 견해, 취업연령 구조, 가사노동)	11
5. 어르신의 삶(고령자 추이, 노후준비, 사회참여)	13
6. 주요 교통수단 및 이용 만족도	18
7. 신문·독서·문화예술 관람	19
8. 주말(휴일) 여가생활	20

자료설명 및 유의사항

○ 2013 서울서베이(서울시)

- 작성목적 :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시정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작성방법 :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약 47,384명(표본가구는 2만 가구)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만65세이상 조사대상은 4,521명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10. 20. ~ 2013. 11. 25/ 조사주기 1년(매년)

○ 2013 사회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만13세 이상 서울시민 약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조사결과에 따라 연령층이 다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5. 11. ~ 5. 26.(16일)/ 조사주기 : 1년(매년)

○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통계청)

- 조사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조사기간 : 2010. 10. 22. ~11. 15. (25일간), 조사기준 시점 : 2010. 11. 1.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 본문 2000년, 2005년,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일반가구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 2010~2035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질적 변화정보는 각종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하는데 유용, 최근 가족 분화 및 해체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의 규모나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장래가구 추계가 필요
- 활용자료 : ① 기준가구 작성, 장래가구추출 및 가구구성비 추정 : 199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② 장래 가구추계 대상인구 추계 : 2011 장래인구추계(2010~2060)
③ 장래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 인구동태자료 및 생명표(1990~2010)
- 작성대상기간/시점 : 2010~2035년(25년간 : 매년 7월1일 기준)
- ※ 본문의 2013년^e, 2020년^e, 2030년^e 가구통계는 장래가구추계 결과 활용, e는 추정치임.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 합이 상위분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I . 요약

<주관적 인식 및 만족도>

- (서울시민 고향인식률) 15세이상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진다' 2003년 65.1% → 2013년 84.4% 증가
 - ▶ 타지역 출생시민의 서울 고향인식률 2003년 56.2%→2013년 77.5%, 고향의 의미가 거주지로 변모
 - ※ 2010년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서울출생 : 40.3%
- (현재 삶 만족도 및 계층의식) 전반적인 생활 고려 시, 현재 삶에 만족하는 서울시민 35.2%, 불만족 19.8%
 - ▶ 15세이상 서울시민 74.4%가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중간층이라고 생각, 하층 23.3%, 상층 2.3%
 - ▶ 본인세대 계층이동 뿐 아니라 자식세대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
- (사회적 차별요인 및 소득 만족도) 15세이상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요인 1위 소득 수준
 - ▶ 19세이상 소득자 중 본인 소득에 불만족이 50.4%로 절반수준이고, 12.2%만이 자신의 소득에 만족
 - ▶ 19세이상 가구주 중 64.7%는 가구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 대비 실제소득이 모자라다고 생각
 - ▶ 가구재정이 악화되면 우선적으로 소비를 줄일 지출항목으로 외식비(55.5%)가 1위

<가족의 모습>

- (가구원수별 가구 및 가족 신뢰) 가족구조 4인가족 중심에서 1인 및 2인 소핵가족으로 변화
 - ▶ 전체 가구 중 4인 가구 2000년 32.1%→2013년 20.8% 감소, 1인 16.3%→26.1%, 2인 가구 17.0%→23.8% 증가
 - ▶ 가구원 수별 가구구조 변화 : 2000년 4인>3인>2인>1인>5인이상 → 2013년 1인>2인>3인>4인>5인이상
 - ▶ 서울시민 94.3% 가족을 신뢰한다고 응답,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도 높아
- (가족의 위험요인) 가족관련 위험 노인의 고립, 자살 및 이혼문제 심각성 인지도 높아
 - ▶ 2013년 전체 일반가구 중 이혼가구 8.5%, 65세이상이면서 1인가구 4.6%, 인구10만명당 자살자 25.6명
 - ▶ 서울가정 중 32.5%는 지난 1년간 가족이 떨어져 살거나 건강이상 등으로 가정에서 위험을 느낌

<청소년의 삶>

- (스트레스 인지도) 2013년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도(평상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낌) 42.1%
 - ▶ 중고생 스트레스 주원인은 공부(성적, 진로 등) 58.3% > 부모님과 갈등 15.5% > 외모 10.4% 순
 - ▶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음악듣기가 가장 높아
- (주중 평균 수면시간) 중고생 주중 평균수면시간 6.3시간(밤12시30분에 취침, 아침 6시48분에 기상)
 - ▶ 2013년 고등학생 주중 평균수면시간 5.6시간, 97.1%는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
 - ▶ 고등학생 48.0%는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20.6%는 충분하다고 생각
- (기대 교육수준 및 사교육 참여) 2012년 학생 기대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이상 응답 91.6%
 - ▶ 대학이상 교육 기대하는 목적 1위 '좋은 직업 갖기 위해, 15~29세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국가기관
 - ▶ 2013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 75.0% (초등학교 84.8%, 중학교 74.7%, 고등학교 61.6%)

I . 요약

<일과 여성의 삶>

- **(여성취업 견해 및 구조)** 여성 가정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 1998년 28.7% → 2013년 45.4% 증가
 - ▶ 2013년 여성 취업자 연령은 25~29세 13.8%, 30~34세 13.7%, 35~39세 10.1%, 40~44세 11.9%
 - ▶ 2013년 15~54세 기혼여성 중 17.3%(321천명)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여성
 - ▶ 전체 여성 취업자 중 45세이상 비중 2000년 28.3% → 2013년 42.1%로 증가, 취업연령 상승
- **(가사노동 및 고용불안)** 직업(장)에서 고용불안 느끼는 여성 취업자 2011년 57.1%→2013년 62.4% 증가
 - ▶ 19세이상 여성 취업자 중 48.3% 가정생활보다 일우선, 13.6% 일보다 가정생활이 우선으로 응답
 - ▶ 가사노동은 ‘아내가 주책임, 남편 약간 도움’ 62.0%, ‘아내가 전적 책임’ 24.8%, ‘공평분담’ 12.1% 순

<어르신들의 삶>

- **(고령화 추이 및 노인부양 부담)** 65세이상 인구 비율 2003년 6.3%→ 2013년 11.2% 증가
 - ▶ 서울 2005년 고령화사회 진입 → 2020년e 고령사회 진입 전망 →2027년e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 2003년 생산 가능인구 12.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 2013년에는 6.8명, 2040년e에는 2.0명 감소 전망
- **(고령가구 및 노후준비 필요성)** 일반가구 중 65세이상 고령가구 2000년 8.5% → 2013년 17.0% 증가
 - ▶ 부모 노후생계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 크게 감소 : 1998년 86.2% → 2012년 28.7%
 - ▶ 65세이상 77.1% 노후 자녀와 동거 비 희망(자녀와 가까운곳 따로 46.2%, 노인전용공간 27.5%, 기타 3.4%)
- **(노후준비 실태 및 방법)** 65세이상 노후 준비율 2005년 36.2% → 2013년 51.4% 증가
 - ▶ 65세이상 남성 노후 준비율 56.8%이고, 여성은 46.8%로 남성보다 낮아
 - ▶ 50~64세 준 고령자 노후 준비율 77.9%, 노후 준비 방법(복수응답) 보험>은행저축>공적연금 등 순
- **(노년 취업과 결혼·이혼)** 65세이상 취업자 2003년 2.8% → 2013년 5.3% 증가, 2012년부터 20~24세 취업자 추월
 - ▶ 2013년 이혼한 남성(20,126건) 중 60세 이상 2,348건으로 11.7% 차지, 황혼 이혼 꾸준히 증가

<교통·문화·여가>

- **(주요 교통수단 및 이용 만족도)** 2013년 통근 및 통학하는 시민 73.9%, 평균 소요 시간 34.9분
 - ▶ 통근 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54.8%, 승용차 26.2% 순, 통학 시 대중교통 70.7%, 도보 23.3% 순
 - ▶ 버스 이용 만족률 2003년 24.0% → 2013년 62.7%, 전철 이용 만족률 2003년 45.3% → 2013년 71.3%
- **(신문·독서·문화예술관람)** 신문 보는 인구 79.6%, 인터넷 신문(81.1%)이 일반 신문(62.3%)보다 높아
 - ▶ 독서인구 비율 69.3%, 독서량 1인당 연평균 19.3권, 교양서적은 여자가, 직업서적은 남자가 높아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 70.3%, 관람내용 중 영화 관람률이 90.2%로 가장 높아
- **(여가생활)** 주말 및 휴일 주 여가활동으로 TV·DVD시청(33.8%)>가사(13.2%)>휴식(10.5%) 순
 - ▶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 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이 48.5%로 가장 높아
 - ▶ 13세 이상 24.6% 여가활용에 불만족, 주된 사유는 경제적 부담(62.1%)>시간부족(20.2%) 순

1. 주관적 인식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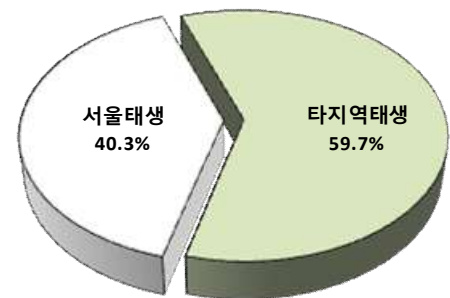
1-1. 고향인식률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진다는 서울시민 고향인식률 증가 : 2003년 65.1% → 2013년 84.4%
 ▶ 타지역 출생 시민의 서울 고향인식률 증가 : 2003년 56.2% → 2013년 77.5%
 고향의 의미가 출생지보다는 거주지(살아온 곳)로 변하고 있음

□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반이 채 안되는 수준이지만 출생지와 상관없이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2013년 84.4%로 첫 조사를 시작한 2003년 65.1%에서 19.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실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40.3%로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13년 서울서베이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중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46.9%로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서울 출생은 절반이 안 됨.

2010년 만15세이상 서울시민의 서울 출생 여부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특히, 타지역 출생 시민 중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살다보니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한 시민은 2003년 56.2%에서 2013년 77.5%로 증가하였으며, 서울 출생 중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2003년 19.4%에서 2013년 7.0%로 감소하였음.

- 고향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출생지보다는 거주지(자신이 살아온 곳)로 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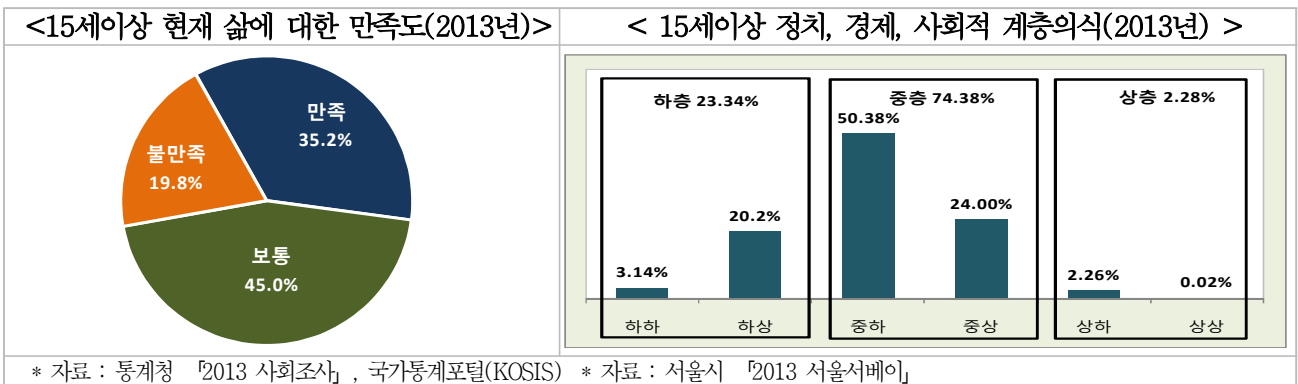
<만 15세이상 중 서울을 고향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서울출생여부에 따른 고향인식률> (단위:%)			
(단위:%) 		구분	전체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짐	서울이 고향으로 느껴지지 않음
		만15세이상 전체	2003년 100.0 2007년 100.0 2010년 100.0 2013년 100.0	65.1 74.9 77.7 84.4	34.9 25.1 22.3 15.6
		서울 출생	2003년 100.0 2007년 100.0 2010년 100.0 2013년 100.0	80.6 88.0 88.1 93.0	19.4 12.0 11.9 7.0
		타지역 출생	2003년 100.0 2007년 100.0 2010년 100.0 2013년 100.0	56.2 66.1 69.6 77.5	43.8 33.9 30.4 22.5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 질문 :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이 고향과 같이 느끼시는지요?

1-2. 현재 삶 만족도 및 계층의식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만족하는 서울사람이 35.2%로 불만족 19.8%보다 많음
15세이상 74.4%는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가 중간층이라고 생각, 하층 23.3%, 상층 2.3%임
본인세대 뿐만 아니라 자식세대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

- 2013년 만15세이상 서울사람들 중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35.2%, 보통 45.0%, 불만족 19.8%로 나타남.
 - 현재 삶에 불만족한 시민보다 만족하는 시민이 더 많았으나 만족 응답율은 1/3 수준에 불과함.
- 또한, 만15세이상 중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74.4%가 중간층에 속한다고 응답했으며, 23.3%는 하층, 2.3%는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함.
 - 중간층 중에서는 중하층이 50.4%로 중상층 24.0%보다 더 많았음.



- 한편 서울사람들은 본인세대 뿐만 아니라 자식 세대에서도 본인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 높았음.
 - 우리사회에서 본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31.3%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53.2%는 낮다고 응답하고 있어 본인세대의 계층이동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임.
 - 또한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39.4%, '낮다' 43.2%로 응답하고 있어 본인세대에 비해서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본인세대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더 높았음.

<본인세대 계층이동(2013년)>					<다음세대(자식세대) 계층이동(2013년)>						
(단위:%)					(단위:%)						
구 분		계	높음	낮음	모르겠음	구 분		계	높음	낮음	모르겠음
13세이상 인구	계	100.0	31.3	53.2	15.5	19세이상 인구	계	100.0	39.4	43.2	17.4
	13~19세	100.0	52.4	35.4	12.2		19~29세	100.0	39.4	44.8	15.9
	20~29세	100.0	35.6	51.7	12.7		30~39세	100.0	38.2	48.9	12.8
	30~39세	100.0	28.7	60.1	11.2		40~49세	100.0	40.0	45.4	14.5
	40~49세	100.0	28.6	58.6	12.9		50~59세	100.0	41.5	40.7	17.9
	50~59세	100.0	25.0	58.0	16.9		60세이상	100.0	38.1	35.3	26.6
60세이상	100.0	28.6	45.4	25.9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표 안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인세대 계층이동 :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식세대 계층이동 :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3. 사회적 차별요인 및 소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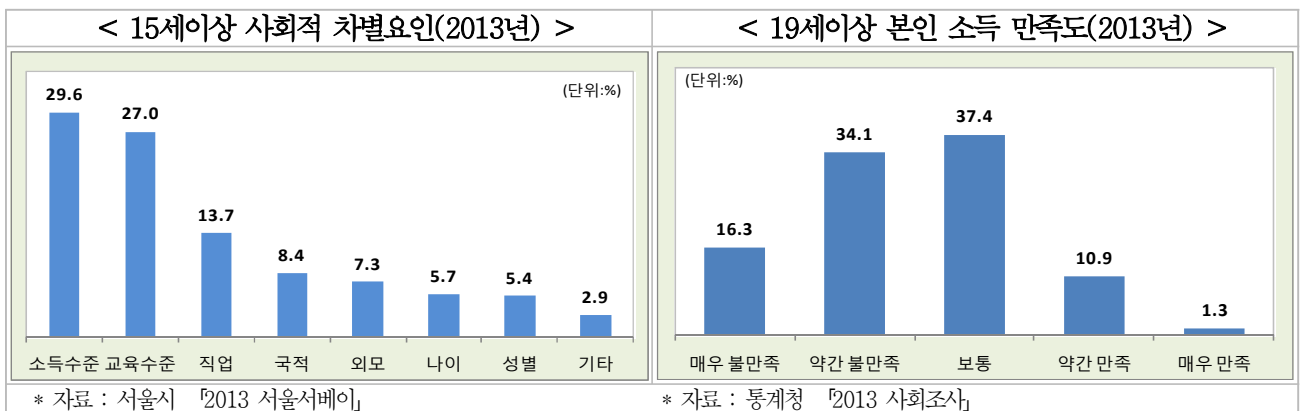
2013년 15세이상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요인 1위는 소득수준.

19세이상 소득자 중 본인 소득에 불만족이 50.4%이고, 12.2%만이 본인의 소득에 만족

19세이상 가구주 중 64.7%는 가구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 대비 실제소득이 모자라다고 응답
 가구재정이 악화되면 우선적으로 소비를 줄일 지출항목으로 외식비(55.5%)가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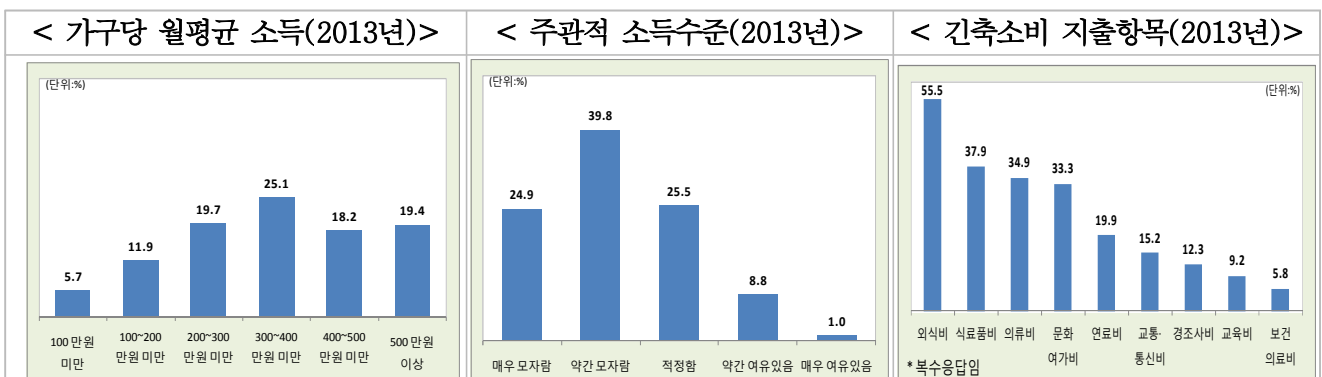
□ 2013년 만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차별받는 요인으로 소득수준(29.6%)을 1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수준(27.0%)이 뒤를 이었음.

□ 본인의 소득 만족도를 보면, 19세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74.7%이며, 이들 중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12.2%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인 사람은 50.4%로 나타남.



□ 2013년 19세이상 가구주 중 가구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금액을 실제 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여유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9.8%에 불과하였으며, 가구주 중 64.7%는 '소득이 모자라다(매우 모자람 24.9%, 약간 모자람 39.8%)'고 응답함.

○ 또한 19세이상 가구주는 만약 가구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 우선적으로(가장 먼저) 소비를 줄일 지출항목으로는 외식비(5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 : 귀택의 지난 1년동안(2012.10.1.~2013.9.30.)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주관적 소득수준 : 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월평균 최소 금액을 생각했을 때, 그 금액과 비교하여 귀 가족의 실제소득은 어느 수준입니까?
 - 긴축소비 지출항목 : 만약 귀 가족의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면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이겠습니까?

2. 가족의 모습

2-1. 가구원수별 가구 및 가족 신뢰

가족구조는 4인 가족 중심에서 1인·2인 소핵가족으로 변화, 가족규모 축소

▶ 4인 가구 2000년 32.1%→2013년 20.8% 감소, 1인 가구 16.3%→26.1% 2인 가구 17.0%→23.8%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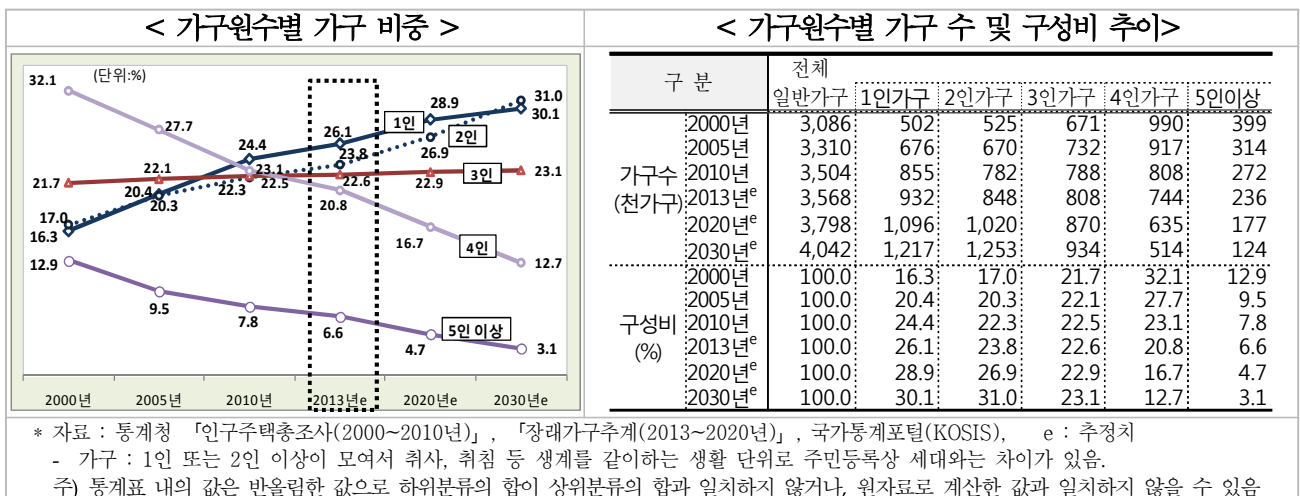
▶ 가구원수별 가구구조 변화 : 2000년 4인>3인>2인>1인>5인 이상 → 2013년 1인>2인>3인>4인>5인 이상
서울시민 94.3% 가족을 신뢰한다고 응답, 가족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도 높아

□ 서울 가족구조가 4인 가족 중심에서 1인 및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보면, 2000년만 해도 4인가구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16.3%, 2인 가구 1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3년에는 1인가구가 26.1%로 가장 많고, 2인 가구 23.8%, 4인가구는 20.8%의 비율을 보임.

○ 가구원 수별 가구구조는 2000년 '4인>3인>2인>1인>5인 이상'에서 2013년 '1인>2인>3인>4인>5인 이상'으로 변화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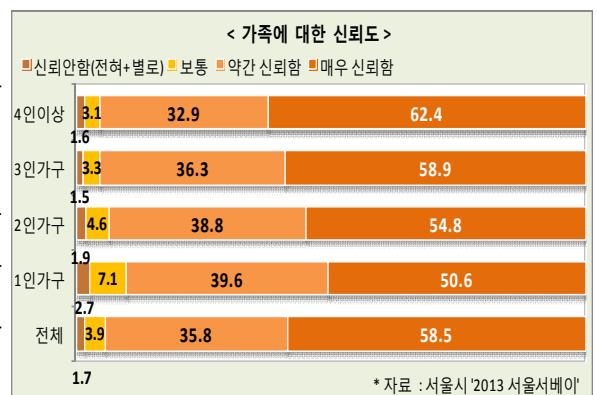
○ 또한 2030년^e에는 1인과 2인가구는 더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는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서울시민들의 가족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함께 사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족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중 94.3%가 가족을 신뢰한다(약간 신뢰 35.8%, 매우 신뢰 58.5%)고 응답하고 있어, 가족 신뢰도는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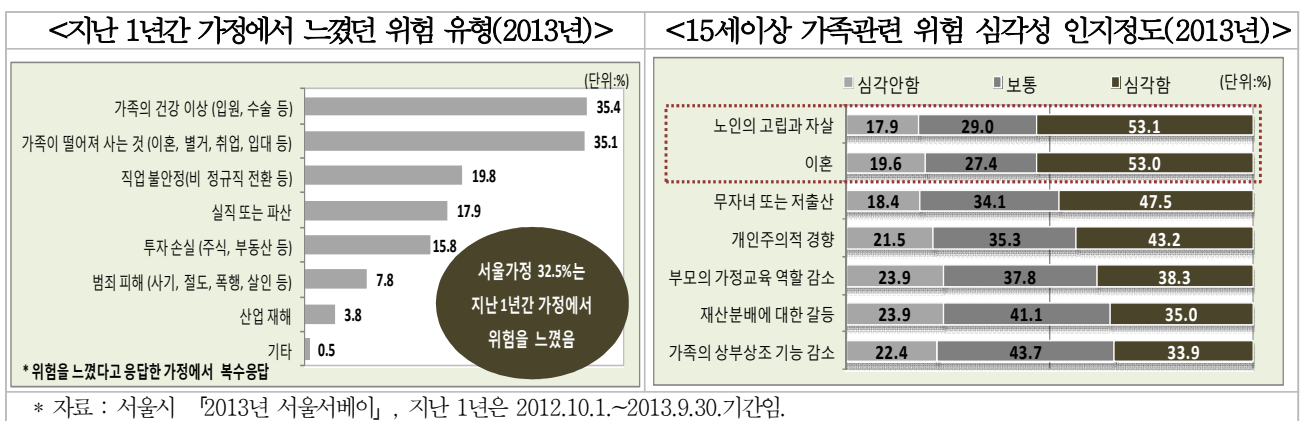
○ 특히 가족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에 1인가구원은 50.6%, 2인 가구 54.8%, 3인 가구 58.9%, 4인 이상 가구원 62.4%로 각각 응답하고 있어 가구원수가 많은 가족일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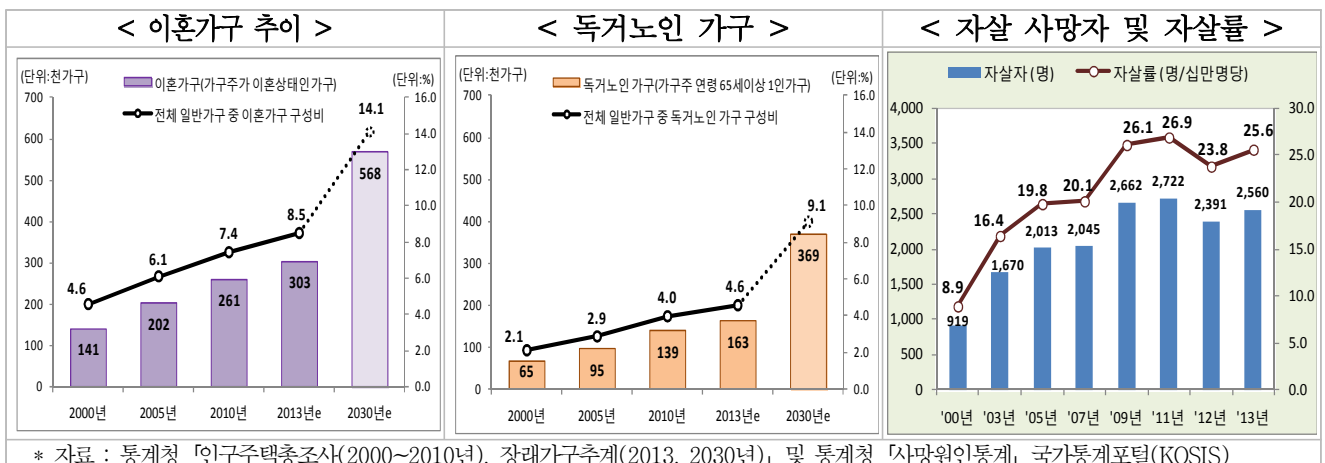
2-2. 가족의 위험 요인

가족관련 위험 심각성 인지에서 서울시민들은 노인 고립과 자살 및 이혼 문제 심각성 인지가 높음
 ▶ 2013년 전체 일반가구 중 이혼가구 8.5% 65세이상이면서 1인가구 4.6% 인구10만명당 자살자 25.6명

- 2013년 서울가정 32.5%(3가구 중 1가구 비중)는 지난 1년간 가정(본인 자신)에서 위험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위험 중 가족의 건강이상(입원, 수술 등),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혼, 별거, 취업, 임대 등), 직업불안정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요인 중 만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노인의 고립과 자살 및 이혼 문제를 다른 위험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



- 가족관련 위험 현황을 통계로 보면, 전체 가구 중 이혼가구는 2000년 4.6%에서 2013년 8.5%로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e에는 14.1%에 달할 전망이며, 가구의 연령이 65세이상이면서 혼자살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는 2000년 2.1%에서 2013년 4.6%로 증가했으며, 2030년^e에는 9.1%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인구10만명당 자살자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00년 8.9명에서 2011년 26.9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2년 23.8명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 25.6명으로 1년 만에 다시 증가함.



3. 청소년의 삶

3-1. 스트레스 인지율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평상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낌) : 42.1%(남학생 34.6%, 여학생 50.3%)

▶ 19세이상 성인 스트레스 인지율 28.7%보다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

중고생 스트레스 주원인은 공부(성적, 진로 등) 58.3%, 부모님과 갈등 15.5%, 외모 10.4% 순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음악듣기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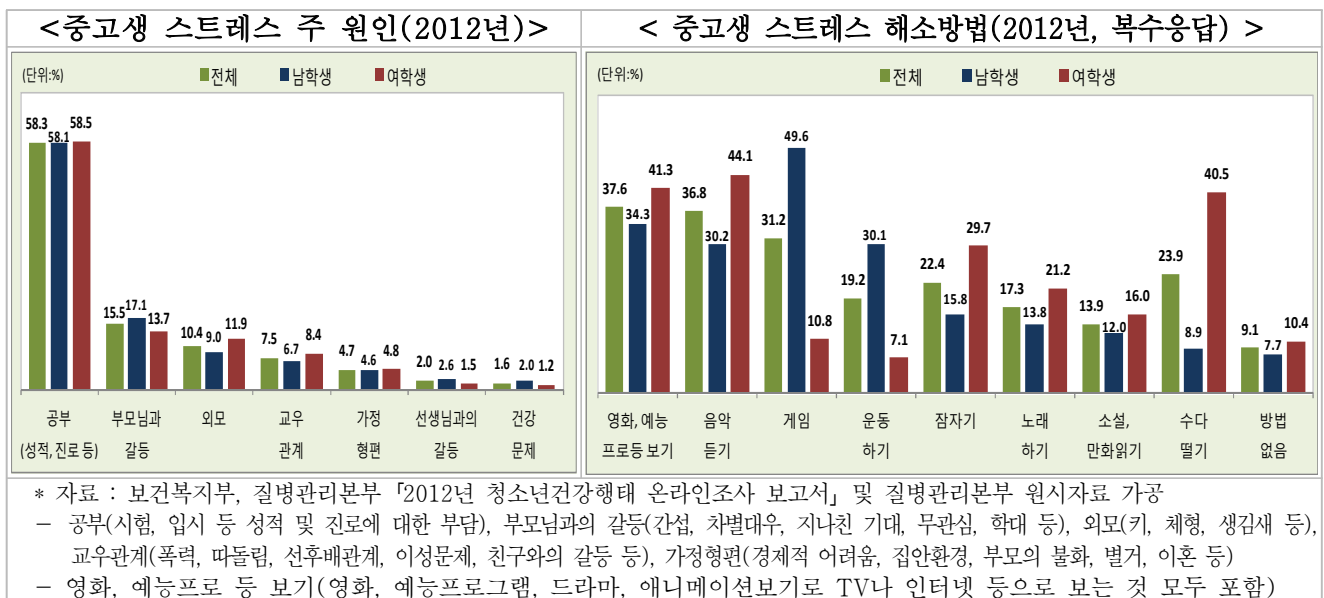
□ 2013년 서울 중고생(청소년) 중 42.1%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우울감 경험률)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생은 33.9%로 나타남.

○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¹⁾은 여학생이 50.3%로 남학생 34.6%보다 15.7%p 높았으며, 우울감 경험률도 여학생이 40.2%로 남학생 28.1%보다 높았음.

※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에 따르면, 만 19세이상 서울시민 스트레스 인지율(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은 28.7%로 조사방법 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이 성인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통계로 보면, 서울 중고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원인으로는 공부(성적, 진로 등)가 58.3%로 1위였고, 다음으로 부모님과 갈등 15.5%, 외모 10.4%, 교우관계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순위 동일함.

○ 스트레스 해소방법(복수응답)으로 남학생은 게임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영화 및 예능프로 보기 34.3%, 음악듣기 30.2%, 운동하기 30.1% 등의 순이고, 여학생은 음악듣기가 44.1%로 가장 많았고, 영화 및 예능프로 보기 41.3%, 수다떨기 40.5%, 잠자기 29.7%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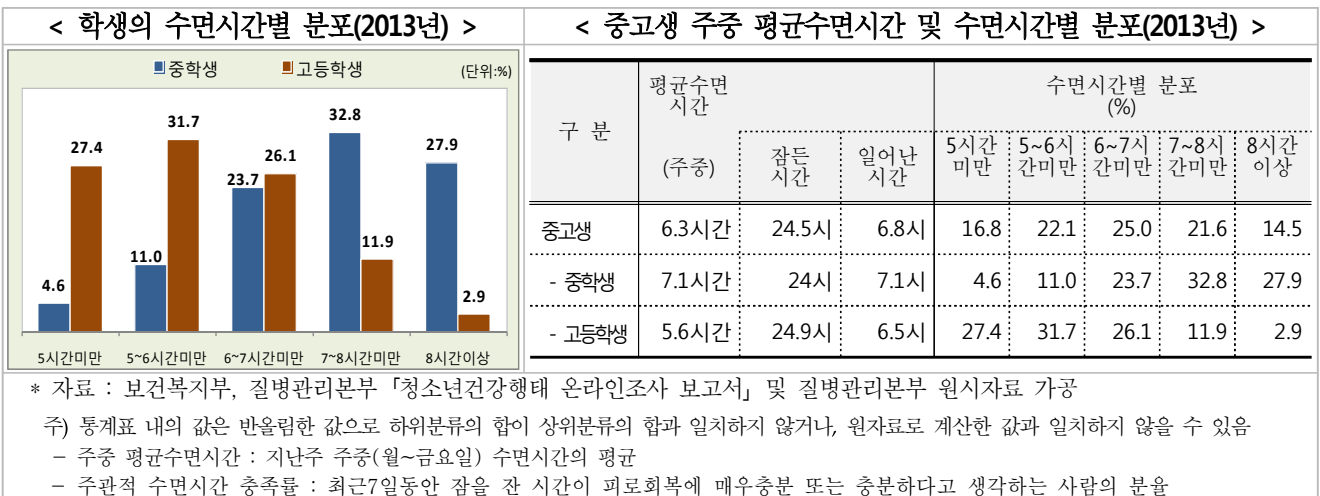
1)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3-2. 주중 평균 수면시간

중고생 주중 평균수면시간 6.3시간 : 밤12시30분에 취침 아침 6시48분에 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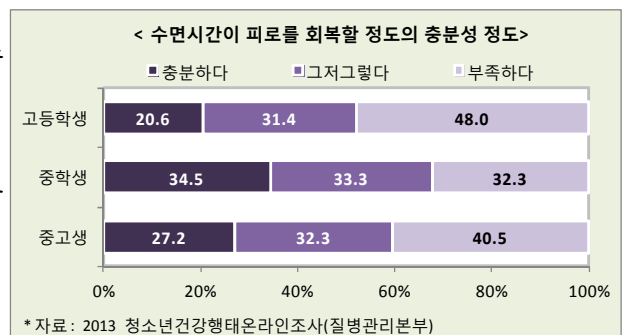
- ▶ 고등학생 평균수면시간 5.6시간이며, 97.1%가 주중 하루평균수면시간이 8시간미만
- ▶ 고등학생 48.0%는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20.6%는 충분하다 응답

- 서울 중고생 주중(월~금요일) 평균수면시간은 2013년 6.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밤 12시3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6시간18분만인 아침 6시48분에 일어나고 있음.
- 이는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고하는 만10~17세 청소년 권고수면시간²⁾보다 약 2시간 정도 부족한 시간임.
-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생은 주중 평균수면시간이 5.6시간(밤 12시54분에 잠들었다아침 6시30분에 일어남), 중학생은 7.1시간(밤 12시에 잠들어서 아침 7시6분에 일어남)임.
- 주중 하루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중학생은 72.1%, 고등학생은 97.1%에 달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중 27.4%는 하루 5시간미만의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함.



- 2013년 중·고등학생들에게 최근 1주일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했는지 물은 결과 중고생 27.2%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40.5%는 수면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학생은 34.5%가 '충분하다', 32.3%는 '부족하다', 33.3%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함.
- 고등학생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48.0%로 '충분하다'는 응답 20.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31.4%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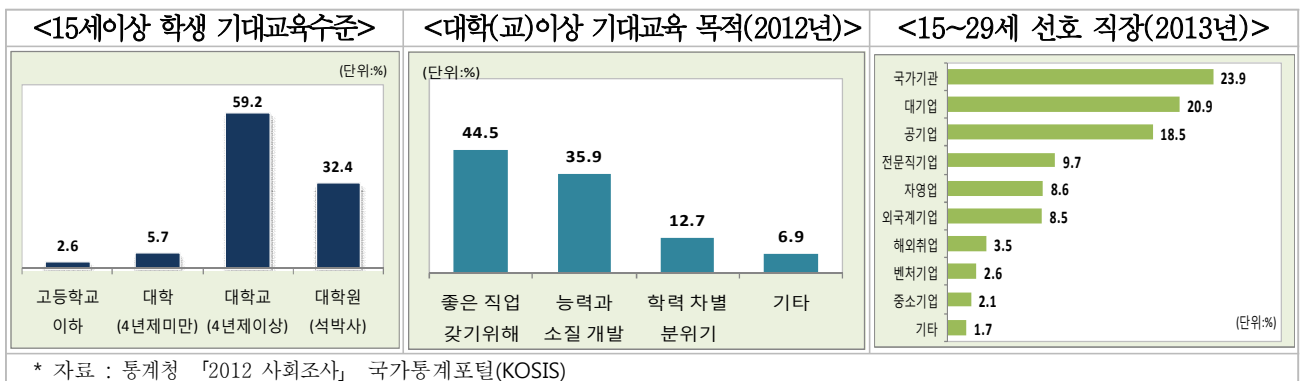


2)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고하는 10~17세 수면시간은 8.5~9.25시간임.

3-3. 기대 교육수준 및 사교육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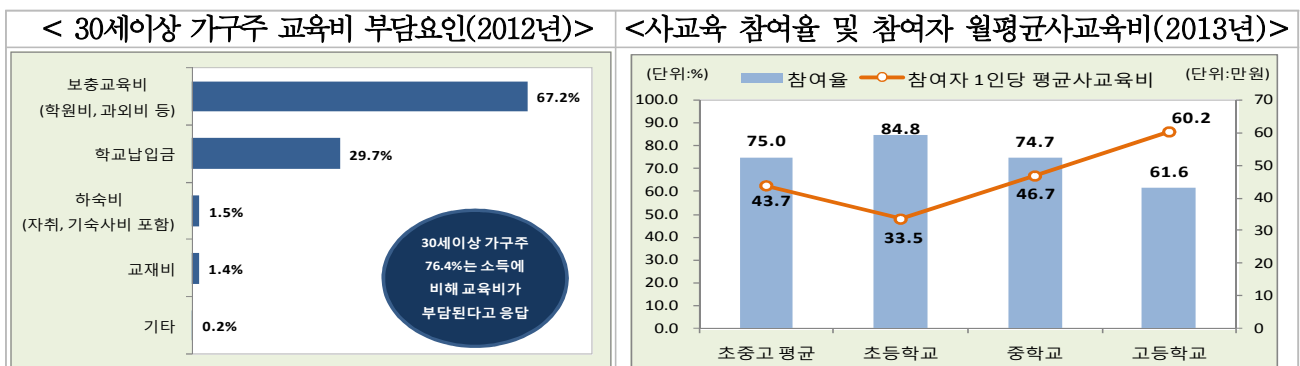
15세이상 학생 중 91.6%는 4년제 대학교이상 교육수준 기대, 이중 32.4%는 석사이상 학력 기대
 ▶ 대학이상 교육 목적 1위 `좋은 직업 갖기 위해`, 15~29세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국가기관`
 30세이상 가구주 76.4%는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응답, 그럼에도 사교육참여율 높아
 ▶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 75.0%(초등학교 84.8%, 중학교 74.7%, 고등학교 61.6%)

- 2012년 15세이상 학생들 중 대부분인 91.6%가 대학교(4년제 이상)이상 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학이상 교육 받기를 희망(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임.
- 15~29세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23.9%, 대기업 20.9%, 공기업 18.5% 등의 순.



- 2012년 학생이 있는 30세이상 가구주 76.4%는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으며, 가장 주된 교육비 부담 요인으로는 보충교육비(과외비, 학원비 등)가 67.2%로 1위임.

-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초중고 학생들 3/4은 사교육을 받고 있음.
- 2013년 서울 초중고 학생의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75.0%(초등학교 84.8%, 중학교 74.7%, 고등학교 61.6%)로 나타났으며,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7천원(초등학교 33만5천원, 중학교 46만7천원, 고등학교 60만2천원)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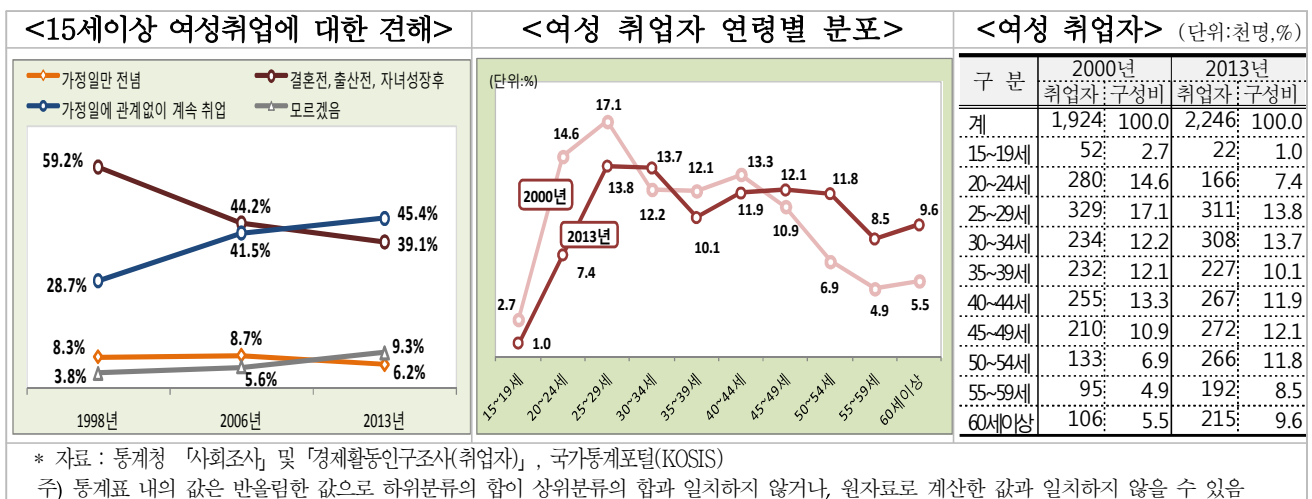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 교육부, 통계청 「2013 사교육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사교육비 범위(학원, 개인 및 그룹과의,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수강료를 의미함)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임. 방과 후 학교, EBS교재비, 어학연수비는 사교육비와 분리 별도항목으로 조사하여 집계함.

4. 일과 여성

4-1. 여성취업 견해 및 취업 구조

여성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견해 : 1998년 28.7%→2013년 45.4%
 2013년 여성 취업자 연령 비중 25~29세 13.8%, 30~34세 13.7%, 35~39세 10.1%, 40~44세 11.9%
 2013년 15~54세 기혼여성 중 17.3%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여성 취업자 중 45세이상 비중 2000년 28.3% → 2013년 42.1% 증가, 취업연령도 고령화

- 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취업관련해서 여성들도 '결혼과 출산 등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당위적 인식'이 1998년 28.7%에서 2013년 45.4%로 크게 증가했으나, 결혼, 출산 및 육아 시점에 경력단절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취업자 연령에서도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분포는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결혼, 출산 및 육아 연령대를 기점으로 취업자가 줄었다가 이후 다시 재취업하는 M자형 취업 구조임.
 - 2000년에는 여성 취업자 중 25~29세가 17.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 12.2%, 35~39세 12.1%로 낮아졌고, 40대 초반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임.
 - 2013년에는 25~29세 13.8%, 30~34세 13.7%로 비중이 높았다가, 35~39세에 10.1%로 감소 하였으며 40대 초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패턴임.
 - 40대에 들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취업자 증가로, 전체 여성 취업자 중 45세이상 비중이 2000년 28.3%에서 2013년 42.1%로 증가함.



- 2013년(4월 기준) 15~54세 서울 기혼여성 185만6천명 중 17.3%(321천명)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여성 32만1천명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로는 결혼이 38.6%(124천명), 육아 36.4%(117천명), 임신 및 출산 21.8%(7만명), 초등학교 자녀교육 3.1%(1만명) 순임.

4-2. 가사노동 및 고용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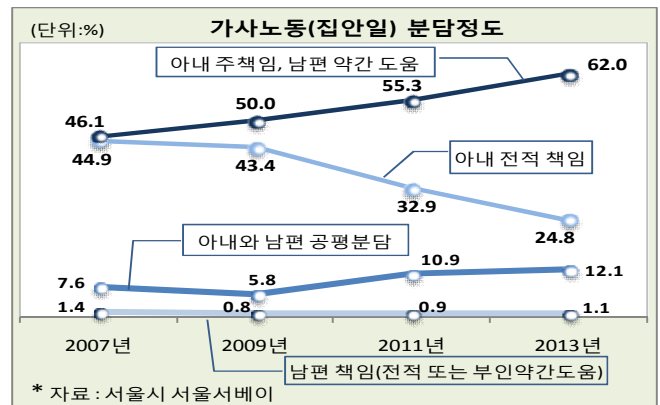
2013년 가사노동 분담형태 : 아내 주책임+남편 약간 도움 62.0% 아내 전적 책임 24.8% 공평분담 12.1%
여성 취업자 중 48.3%는 가정생활보다 일 우선, 13.6%는 일보다 가정생활 우선이라고 응답
직업(장)에 대해 불안함 느끼는 여성 취업자 2011년 57.1%에서 2013년 62.4%로 증가

□ 2013년 서울가정에서는 가사노동 분담 형태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다’ 62.0%, ‘아내 전적 책임이다’ 24.8%,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12.1% 순임.

○ 15세이상 가구주에게 가사노동(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하는지 물은 결과,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이 2013년 12.1%로 2007년 7.6%에서 소폭 증가.

○ 반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 비율은 2007년 44.9%에서 2013년 24.8%로 줄었으며,

○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다는 비율은 2007년 46.1%에서 2013년 6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노동 : 집청소, 빨래, 음식하기, 노인 및 어린이 돌보기 등

□ 여성 취업자 중 직장을 잃거나 바뀌야 한다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가정생활 우선보다 더 높게 나타남.

○ 2013년 만19세이상 여성 취업자 중 평소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뀌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62.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 57.1%에서 5.3%p 증가하였음.

○ 또한 만19세이상 여성 취업자에게 일과 가정생활 중 어떤 것을 우선 시 하는지 물은 결과,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48.3%, 가정생활 우선은 13.6%로 나타남. 남성 취업자는 일우선이 66.4%, 가정생활 우선 7.3%로 응답하여 가정생활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여성 취업자가 남성보다 약간 높았음.

<직장을 잃거나 바뀌야 한다는 불안감 ¹⁾ > (단위:%)							<19세이상 취업자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2013년)>		
19세이상 취업자	계	불안함			불안 안함		일우선	둘다 비슷	가정생활 우선
		매우 많이 불안	약간 불안	별로 불안안함	전혀 불안 안함				
2011년	계	100.0	61.4	19.9	41.5	38.6	31.0	7.6	
	남자	100.0	64.5	20.3	44.2	35.4	28.9	6.5	
2013년	계	100.0	65.1	19.4	37.7	42.9	33.9	9.0	
	남자	100.0	67.2	23.5	43.7	32.8	28.2	4.6	
	여자	100.0	62.4	19.6	42.8	37.6	31.5	6.1	

성별	일우선	둘다 비슷	가정생활 우선
여자	48.3	38.1	13.6
남자	66.4	26.3	7.3
전체	58.7	31.3	10.0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1) 지난 1주일 동안 일한 적이 있는 사람
 주) 통계표 내의 구성비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어르신의 삶

5-1. 고령화 추이 및 노인부양 부담 증가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2003년 6.3%에서 2013년 11.2%로 증가, 2040년^e에는 30.2%가 될 전망

▶ 65세이상 인구 2003년 65만명에서 2013년 116만7천명으로 10년 새 79.6%(517천명) 증가

고령화 추이 : 2005년 고령화사회 진입, 2020년^e 고령사회 진입 전망, 2027년^e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2003년 생산가능인구 12.1명이 고령자 1명 부양, 2013년 6.8명, 2040년^e에는 2.0명으로 감소 전망

□ 서울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3%에서 2013년 11.2%로 증가하였음.

○ 65세이상 인구는 2003년 65만명에서 2013년 116만7천명으로 10년 새 79.6%(517천명) 증가함.

○ 서울은 2005년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7.1%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0년^e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65세이상 인구 비율 14.6%), 2027년^e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65세이상 인구비율 20.4%)되고 있음.

※ 고령화 사회(UN 정의) :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비율을 기준으로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됨.

□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65세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03년 12.1명에서 2013년 6.8명으로 줄었으며,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 될 경우 2020년^e에는 5.0명, 2040년^e에는 2.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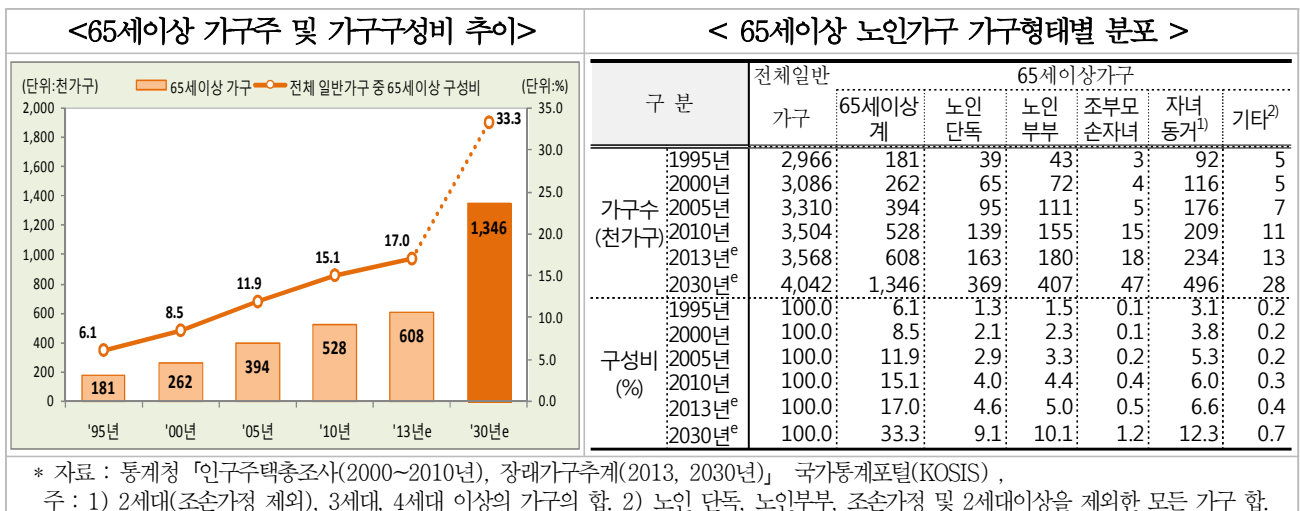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구성비 추이>		<연령별 인구구조 및 사회적 부양부담 추이 >								
		연령별 인구(천명)				연령별 구성비(%)				고령자1명당 생산가능 인구(명)
		구 분	전체	0~14 세	15~64 세	65세 이상	전체	0~14 세	15~64 세	
2003년	6.3	10,277	1,797	7,830	650	100.0	17.5	76.2	6.3	12.1
2005년	7.1	10,297	1,716	7,845	736	100.0	16.7	76.2	7.1	10.7
2007년	8.2	10,422	1,608	7,961	852	100.0	15.4	76.4	8.2	9.3
2009년	9.0	10,464	1,501	8,020	943	100.0	14.3	76.6	9.0	8.5
2010년	9.5	10,575	1,444	8,123	1,008	100.0	13.7	76.8	9.5	8.1
2011년	10.0	10,529	1,393	8,086	1,049	100.0	13.2	76.8	10.0	7.7
2012년	11.2	10,442	1,347	7,985	1,111	100.0	12.9	76.5	10.6	7.2
2013년	14.6	10,388	1,302	7,919	1,167	100.0	12.5	76.2	11.2	6.8
2020년 ^e	20.4	10,135	1,189	7,465	1,481	100.0	11.7	73.7	14.6	5.0
2027년 ^e		10,222	1,187	6,950	2,085	100.0	11.6	68.0	20.4	3.3
2040년 ^e	30.2	9,924	1,009	5,922	2,994	100.0	10.2	59.7	30.2	2.0

* 자료 : 서울시 「등록인구(2003~2013년)」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는 추정치를 말함.
 -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65세이상 인구
 주) 통계표 내의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2. 고령가구 및 부양가치관 변화

전체 가구 중 가구주연령 65세이상 고령가구 비중 증가 : 2000년 8.5% → 2013년 17.0%
 부모 노후생계 자녀가 부양해야한다는 견해 크게 감소 : 1998년 86.2% → 2012년 28.7%
 65세이상 77.1% 노후에 자녀와 살기 희망하지 않고, 60세이상 건강·경제문제로 어려움 느껴
 65세이상 현재 월 소득 200만원이상 11.0%, 노후 희망소득이 200만원이상은 되어야한다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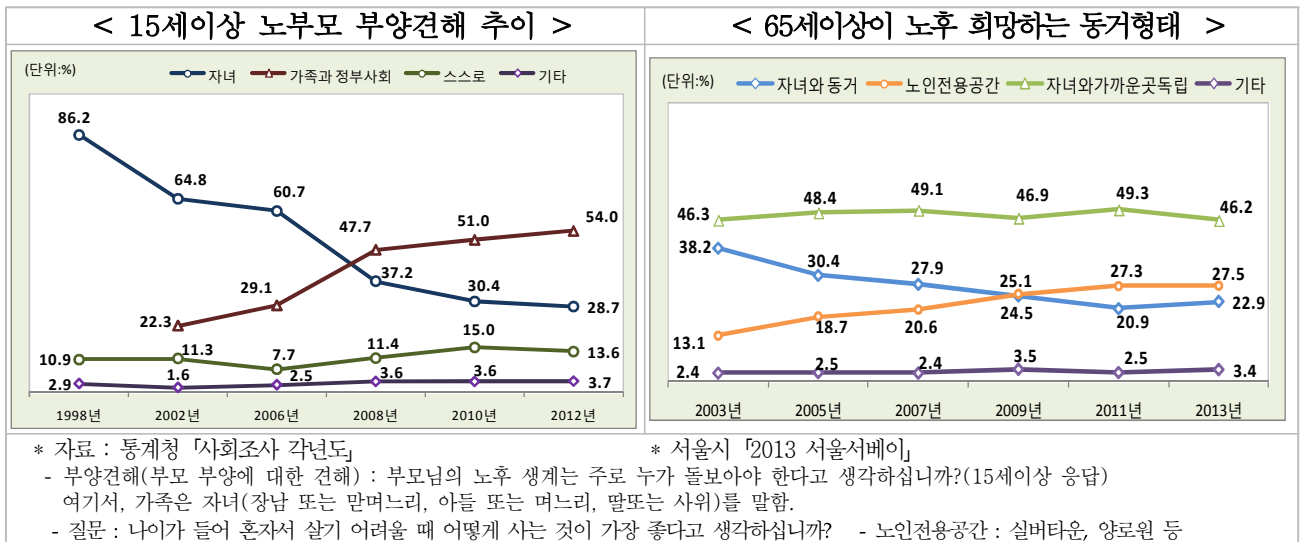
-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생활이 길어지고, 노년기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소득의 감소, 건강 문제, 가족구성의 변화,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짐.
- 가족구성이 기존의 확대가족 체제에서 소핵가족 중심의 체제로 변화하면서 노부모 부양 기능이 매우 약화되고 있음. 과거 가족 안에서 노인을 돌보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부부만 살거나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취업이 늦어지면서 미혼자녀를 부양하는 노인 증가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가 증가하고 있음.
-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가구는 2000년 8.5%에 불과했으나 2013년 17.0%로 증가했으며, 2030년^e에는 전체 가구 중 3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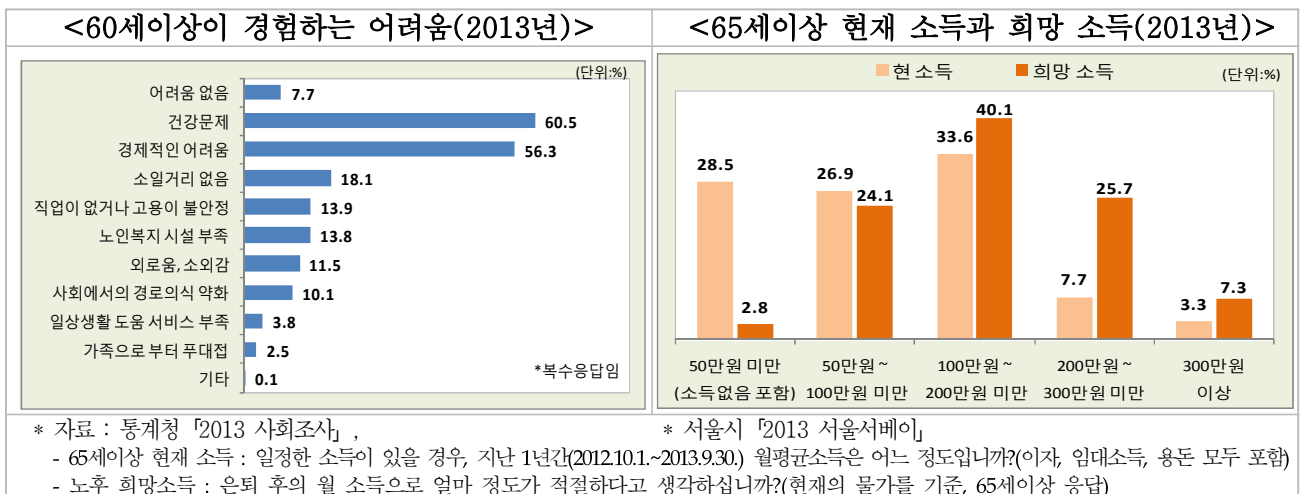
- 또한 자녀들이 전적으로 부모 부양을 책임지던 과거 부양가치관이 약화되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에 대해 자녀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와 사회의 노후보장체계 마련 및 부모 스스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음.
-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변화 추이를 보면, 1998년 만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86.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그 비율이 2012년에는 28.7%로 크게 줄어든 반면, 부모 노후생계는 가족(자녀) 및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는 2002년 22.3%에서 2012년 54.0%로 증가하였으며, 부모 스스로 해결도 2006년 7.7%에서 2012년 13.6%로

증가하였음.

- 또한, 2013년 65세이상 77.1%는 노후에 자녀와 살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 65세이상이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형태로 자녀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독립주거가 안 됐을 경우라도 자녀와 같이 살기보다는 노인전용공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은 2003년 38.2%에서 2013년 22.9%로 감소하였음.



- 2013년 60세이상이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복수응답)로는 건강문제(60.5%)와 경제적인 어려움(56.3%)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이상의 현재 소득(이자, 임대, 용돈 모두 포함)이 희망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65세이상 인구 중 2013년 현재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미만이라는 응답이 28.5%, 200만원이상이 11.0%인 반면, 노후에 희망하는 월소득 50만원미만은 2.8%에 불과하고 200만원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0%로 현재 소득이 희망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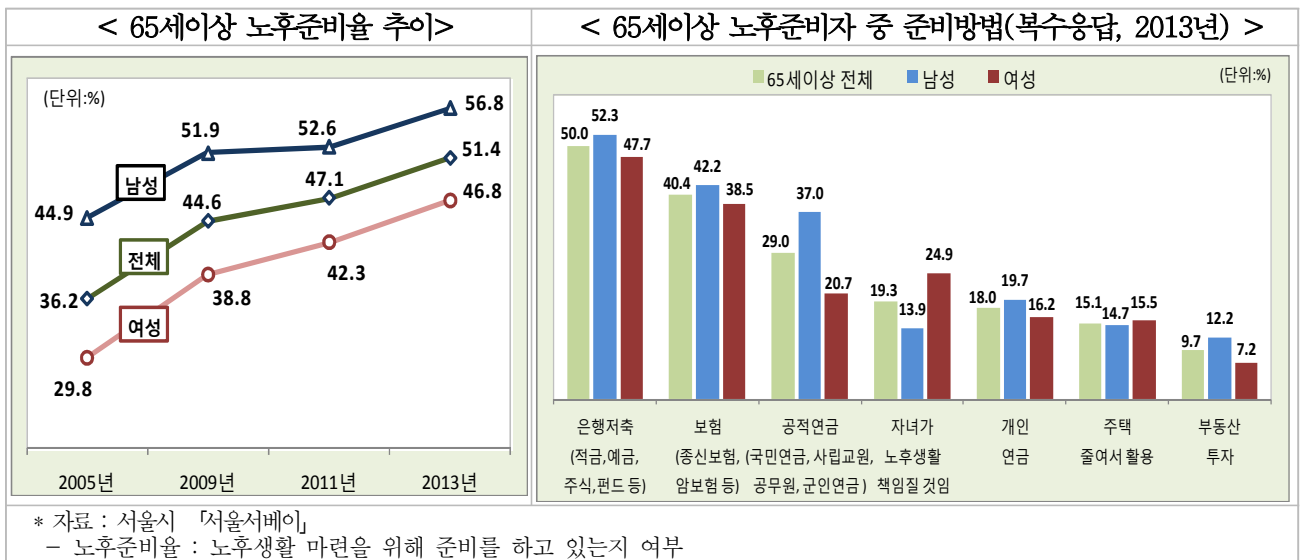


5-3. 노후준비 실태 및 방법

65세이상 인구의 노후준비율 : 2005년 36.2%에서 2013년 51.4%로 증가

▶ 2013년 노후 준비자 중 노후준비방법(복수응답)으로는 은행저축>보험>공적연금 등의 순
65세이상 남성 노후준비율 56.8%인 반면, 여성 노후준비율은 46.8%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50~64세 준고령자 노후준비율 77.9%, 노후준비방법(복수응답) 보험>은행저축>공적연금 등의 순.

- 노후준비 실태를 고령자(65세이상)와 준고령자(50~64세)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준고령자의 노후준비율이 고령자의 노후준비율보다는 높았음.
- 65세이상의 노후준비율은 2005년 36.2%에서 2013년 51.4%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65세이상의 노후준비방법(복수응답)으로는 은행저축 50.0% > 보험 40.4% > 공적연금 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 보면, 2013년 65세이상 남자 노후 준비율은 56.8%인 반면, 여자는 46.8%에 불과 하였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65세이상 여성 중 24.9%는 노후준비의 한 방법으로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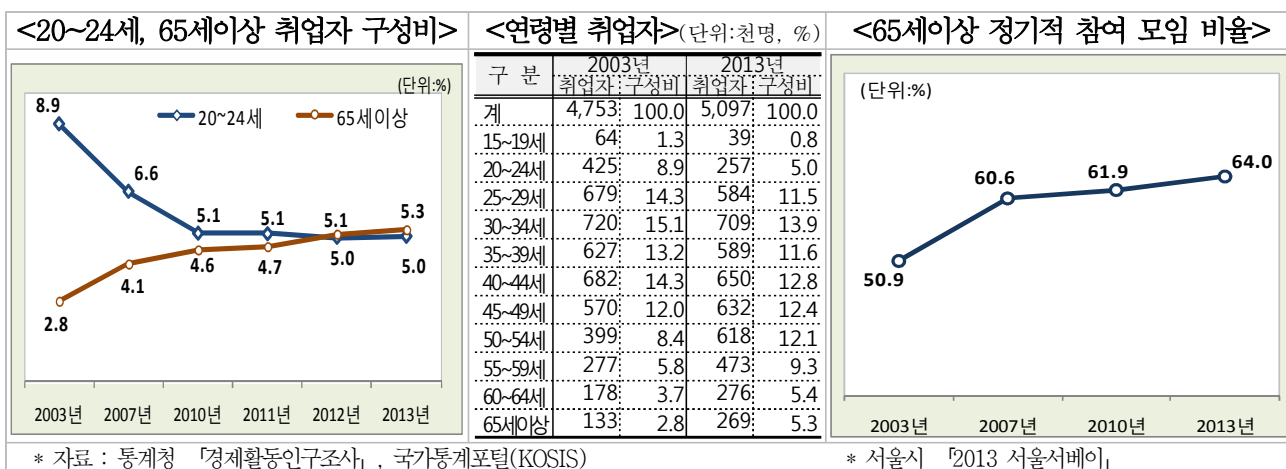


- 또한, 2013년 베이비부머를 포함하고 있는 만50~64세 연령계층인 준고령자의 노후준비율은 77.9%로 현재 65세이상 노후준비율 51.4%보다 높았으며, 준고령자 중 남성 노후준비율은 82.5%로 여성 73.5%보다 높게 나타남.
- 50~64세 노후준비를 했다는 응답자 중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보험 66.9%, 은행저축 57.9%, 공적연금 54.6%, 개인연금 29.5%, 부동산 투자 12.5%, 현재 주택 규모를 줄여서 발생하는 수익 활용 8.5%,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임 2.4% 등의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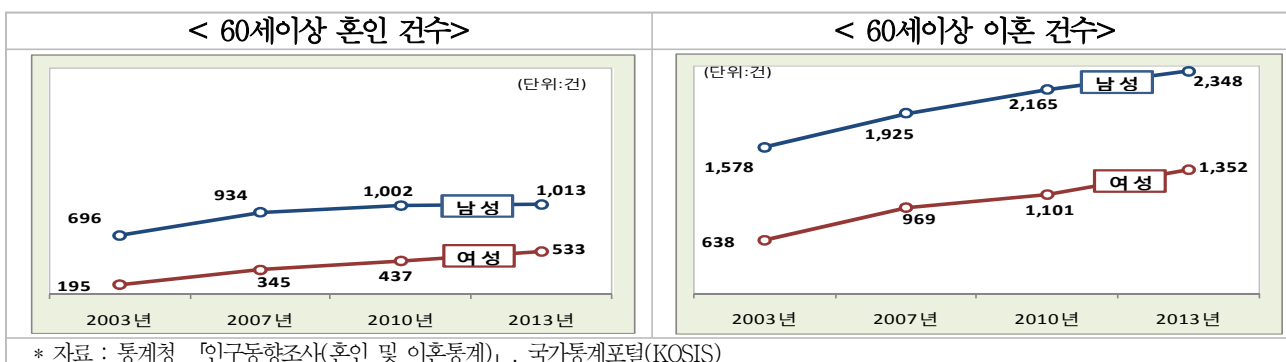
5-4. 노년 취업과 혼인 및 이혼

65세이상 취업자 비중 2003년 2.8%~2013년 5.3%로 증가하여 2012년부터 20~24세 취업자(8.9% → 5.0%)추월
 2013년 이혼한 남성(20,126건) 중 60세이상이 2,348건으로 11.7% 차지, 황혼이혼 꾸준히 증가

- 65세이상 취업자 비중이 2003년 2.8%에서 2013년 5.3%로 증가한 반면, 20~24세 취업자는 2003년 8.9%에서 2013년 5.0%로 감소하여 2012년부터 65세이상 취업자가 20~24세 추월함.
- 65세이상 취업자 2003년 13만3천명에서 2013년 26만9천명으로 10년 새 2배 증가함
- 65세이상 노인 중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나 모임(정기적인 사회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3년 50.9%에서 2013년 64.0%로 증가하였으며, 참여자 중 활동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노인정 (경로당)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단체 33.5%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전체 혼인과 이혼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이상 혼인 및 이혼은 증가하고 있음.
- 전체 혼인은 2003년 72,750건에서 2013년 68,819건으로 감소했음에도 60세이상 남성 혼인은 696건→ 1,013건으로 1.5배, 여성 혼인은 195 → 533건으로 2.7배 증가함.
- 또한, 전체 이혼은 2003년 32,499건에서 2013년 20,126건으로 감소했음에도 60세이상 남성 이혼은 2003년 1,578건에서 2013년 2,348건으로 1.5배 증가, 60세이상 여성 이혼은 638 → 1,352건으로 2.1배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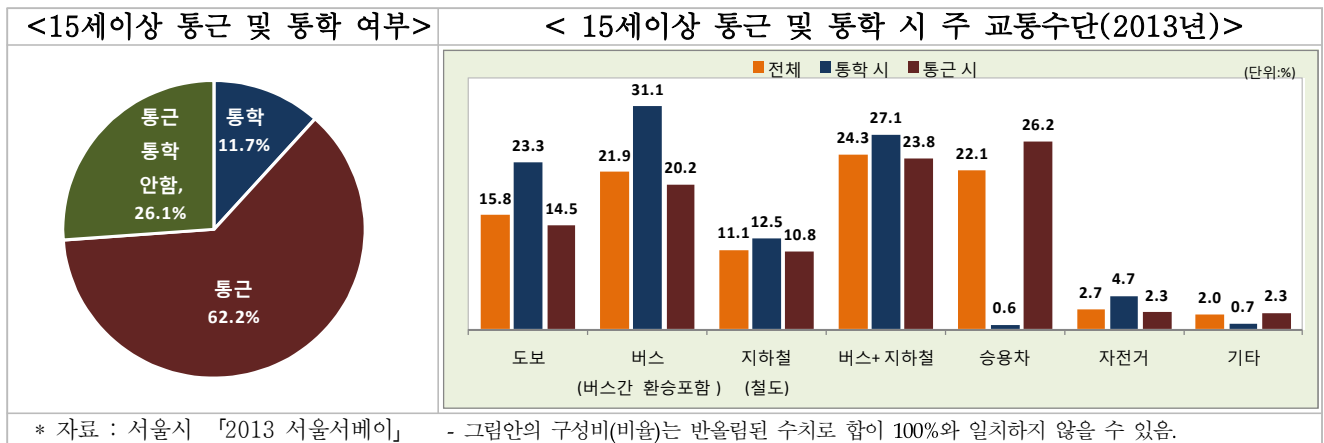
6. 주요 교통수단 및 이용 만족도

통근 및 통학하는 시민비율 73.9%, 통근·통학 시 평균 소요시간은 34.9분.

- ▶ 통학 시 : 대중교통 70.7%(버스 31.1%, 버스+지하철 27.1%, 지하철 12.5%), 도보 23.3%
 - ▶ 통근 시 : 대중교통 54.8%(버스+지하철 23.8%, 버스 20.2%, 지하철 10.8%), 승용차 26.2%
- 버스 이용 만족률 2003년 24.0% → 2013년 62.7%, 전철은 2003년 45.3% → 2013년 71.3%

□ 2013년 만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73.9%(통근 62.2%, 통학 11.7%)가 통근 및 통학을 하고 있으며, 통근 및 통학 시 평균소요시간은 34.9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 70.7%(버스 31.1%, 버스+지하철 27.1%, 지하철 12.5%), 도보 23.3 등의 순임.
- 통근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 54.8%(버스+지하철 23.8%, 버스 20.2%, 지하철 10.8%), 승용차 26.2%, 도보 14.5% 등의 순임.



□ 서울시민들은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이용 만족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 이용 만족률이 버스보다 높지만, 10년 새 만족률 상승폭은 버스가 더 높게 나타남.

- 만15세이상 서울시민의 버스에 대한 만족률은 2003년 24.0%에서 2013년 62.7%로 38.7%p, 지하철 이용 만족률은 45.3%에서 71.3%로 26.0%p 각각 증가함.

구분	버스에 대한 만족정도								지하철에 대한 만족정도							
	계	불만족			만족				계	불만족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만족	약간	매우	매우		약간	보통	만족	약간	매우		
2003년	100.0	29.6	6.7	22.9	46.4	24.0	21.3	2.7	100.0	12.3	2.1	10.1	42.4	45.3	36.8	8.6
2007년	100.0	13.3	2.5	10.7	40.6	46.1	36.5	9.6	100.0	11.4	1.8	9.6	34.7	53.9	41.6	12.4
2010년	100.0	10.1	1.5	8.5	37.3	52.6	47.2	5.4	100.0	6.4	0.5	5.9	29.3	64.4	53.6	10.8
2013년	100.0	4.8	0.3	4.5	32.5	62.7	53.3	9.4	100.0	5.5	0.5	5.0	23.2	71.3	55.6	15.8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 표 안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7. 신문독서문화예술 관람

13세이상 신문보는 인구 비율 79.6%, 일반신문(62.3%)보다 인터넷신문(81.1%)을 많이 봄
독서인구 비율 69.3%, 독서량 1인당 연평균 193권 교양서적은 여자가, 직업서적은 남자가 더 독서를 높음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은 70.3%, 관람내용으로는 영화 관람을 90.2%로 가장 많았음

- 2013년 만13세이상 중 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79.6%로 2011년 83.5%에 비해 3.9%p 감소하였으며, 여성(74.5%)보다는 남성(85.0%)이 많이 보고, 일반신문(62.3%)보다는 인터넷신문(81.1%)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	신문) 보는 인구 비율	(지난 1개월동안(2013.4.11.~2013.5.10.)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일반 신문	소계						인터넷 신문	소계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소계		거의 매일	1주에 3~4회	1주에 1~2회	2주에 1회	
2011년	100.0	83.5	73.1	100.0	47.4	17.8	22.3	12.5	77.8	100.0	54.8	21.6	16.7	6.8	
2013년	100.0	79.6	62.3	100.0	47.9	18.1	20.4	13.6	81.1	100.0	60.5	18.7	13.9	6.9	
남 자	100.0	85.0	67.7	100.0	53.6	17.4	18.0	11.0	80.6	100.0	66.9	15.8	11.4	5.9	
여 자	100.0	74.5	56.6	100.0	40.5	19.0	23.6	16.9	81.7	100.0	53.9	21.8	16.5	7.9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1) 신문 구독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난 1개월 동안 2주일에 1회 이상 신문을 본 사람

- 또한, 지난 1년 동안 13세이상 독서인구 비율은 69.3%로 나타났으며, 독서인구 1인당 연 평균 독서권수는 19.3권임. 종류별로 보면, 교양서적 독서율은 여자(76.9%)가 남자(69.4%)보다 높았으며, 직업서적 독서율은 남자(47.3%)가 여자(3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 분	계	(지난 1년동안(2012.5.11.~2013.5.10.)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독서1) 권수
		독서 인구비율	잡지류 독서권수	교양		직업		생활,취미, 정보 서적		기타			
				서적	독서권수	서적	독서권수	정보 서적	독서권수	기타	독서권수		
2011년	100.0	69.8	50.6	8.2	75.8	10.8	39.9	8.4	30.7	5.8	22.1	22.5	22.5
2013년	100.0	69.3	47.9	6.6	73.3	9.7	38.9	8.1	26.7	5.1	19.7	22.8	19.3
남 자	100.0	69.0	42.5	7.4	69.4	10	47.3	8.9	22.6	5.9	25.3	25.9	22.2
여 자	100.0	69.6	52.8	6.1	76.9	9.5	31.0	7.1	30.4	4.6	14.5	17.6	16.7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주 : 1) 독서 인구 1인당 연평균 독서권수

- 지난 1년(2012.5.11.~2013.5.10.)동안 13세이상 공연, 전시 및 스포츠를 한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은 70.3%로 나타났으며, 관람 분야로는 영화 관람이 90.2%로 가장 많았음.

구 분	계	(지난 1년동안(2012.5.11.~2013.5.10.)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관람횟수)															
		관람함		음악 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인구 비율	평균 횟수
2011년	100.0	67.0	9.7	29.8	2.6	34.9	2.5	3.8	2.7	86.4	6.5	27.4	2.6	26.1	2.5	23.3	4.1
2013년	100.0	70.3	10.1	25.3	2.7	33.1	2.7	3.2	3.5	90.2	6.9	26.4	2.7	23.1	2.8	20.6	4.2
남 자	100.0	68.8	9.8	20.7	2.8	27.4	2.4	2.6	4.5	89.3	6.8	24.3	2.6	17.9	2.4	29.7	4.5
여 자	100.0	71.7	10.4	29.5	2.7	38.2	2.8	3.9	2.9	91.0	7.0	28.4	2.8	27.9	2.9	12.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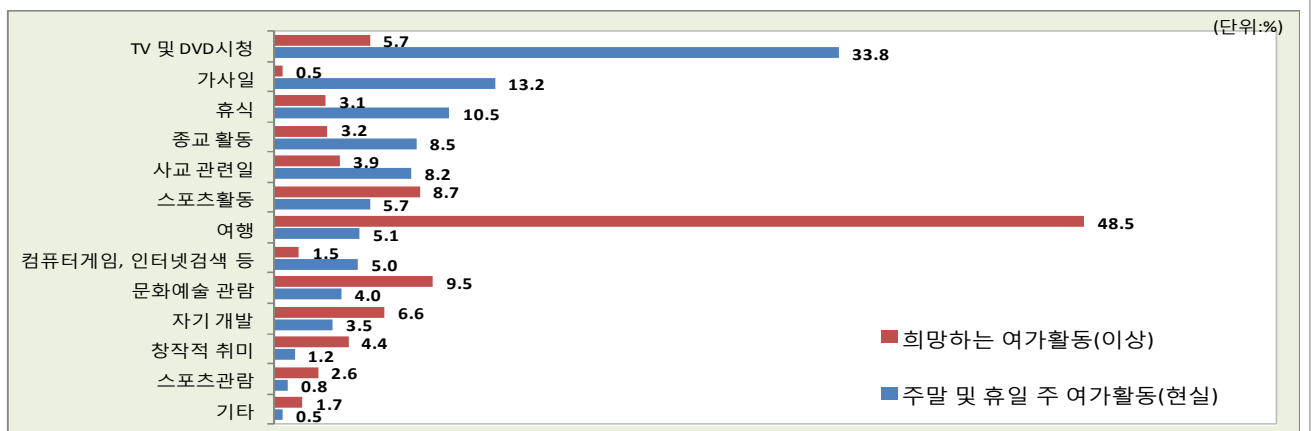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8. 주말(휴일) 여가생활

주말휴일 주 여가활동으로 TV(DVD) 시청이 33.8%로 가장 많고, 가사일 13.2%, 휴식 10.5% 순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이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문화예술관람 9.5% 순
13세이상 24.6%가 여가활동에 불만족,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62.1%로 가장 높았음

- 가장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지만, 현실에서는 주로 TV(DVD) 시청, 가사, 휴식으로 여가시간 보내고 있음.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 방법으로는 TV 및 DVD 시청이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사일 13.2%, 휴식 10.5% 등의 순임.
- 현실과 달리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 48.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관람 9.5%, 스포츠 활동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TV 및 DVD시청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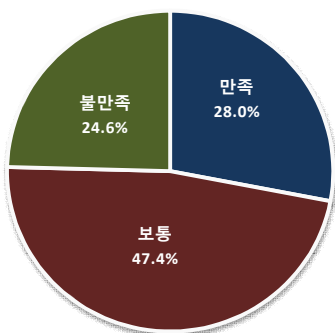
<13세이상 주말이나 휴일 주 여가활동 및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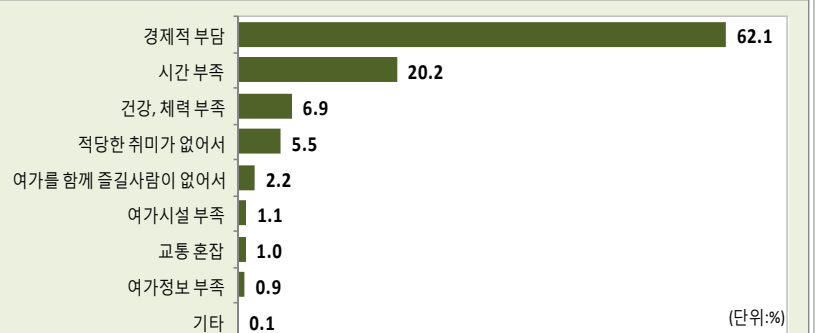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조사대상 : 만13세이상

- 평소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28.0%, 보통 47.4%, 불만족 24.6%로 나타났으며,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부족 20.2% 순임.

<13세이상 평소 여가생활 만족률>



<만족하지 못한다면 주된 이유(2013년)>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조사대상 : 만13세이상